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가족 중에서 ○○○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온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21~23절(구약 5019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으로다. 아멘.

말씀(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녀가 되라)

지난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나타나셨고 그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서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인생에 재앙이 밀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구걸해야 했던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재앙이 아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품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둠 속을 걸을 수 있습니까? 등불 되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뚝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2025년은 물론이거니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의 든실한 버팀목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으로다.” 하나님은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인생 안에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
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
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세웠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온 가족과 생업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에 담임목사 황남일

2025년

[누구나 예배 순서지를 읽으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설 가정
예배

명절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길 20

☎ T.994-8812 F.994-8817

www.scdch.org